

# 취업자 19개월만에 최대폭 ↑ ... 건설업·청년층 부진 지속

### 도소매업·숙박음식점업 등 취업자수 반등 건설업 17개월 제조업 15개월 연속 감소 15~64세 고용률 70.4%... 9월 기준 역대 최고 청년 고용률은 17개월째 ↓ ... 하락폭은 축소

9월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31만 2000명 증가하며 1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냈다.

2차 추가경정예산에 포함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문화쿠폰의 효과로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예술·여가서비스업 등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하지만 건설업·제조업·농림어업 등에서는 고용 부진이 지속됐고, 청년층 고용률도 17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1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2000명 증가했다.

월간 취업자수 증가폭은 지난해 12월 비경제계업 사태 여파로 마이너스(-5만2000명)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1월(13만5000명)과 2월(13만6000명), 3월(19만3000명), 4월(19만4000명), 5월(24만5000명)까지 증가세를 이어갔다.

6월(18만3000명)과 7월(17만1000명), 8월(16만6000명)에는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가다가 9월 들어서는 30만명대로 확대됐다. 지난해 2월(32만9000명) 이후 가장 큰 증가폭이다.

서비스업이 고용 개선세를 주도했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30만4000명),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7만5000명), 교육서비스업(5만6000명), 도소매업(2만8000명), 숙박및음식점업(2만6000명), 사업시설서비스업(1만9000명) 등에서 취업자가 증가했다.

예술관련 서비스업(1만6000명→7만5000명)과 도소매업(0명→2만8000명), 숙박및음식점업(0명→2만6000명) 등은 8월에 비해 취업자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2차 추경 사업으로 추진 중인 소비쿠폰과 문화쿠폰 지급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공미속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사업시설서비스업과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이 증가 전환한 것이 (9월 취업자) 큰 폭 증가 요인이 된 부분"이라며 "예술스포츠여가도 크게 증가했는데 소비쿠폰과 문화쿠폰 발행이라는 정책적 영향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장주성 기획재정부 인력정책과장은 "2차 소비쿠폰이 9월부터 지급됐고 되고 있다. 문화쿠폰은 소진될 때까지 연말까지 지급되는 거로 안다"며 "대규모 할인축제가 10월 말에 예정돼있는 만큼 소비활성화 위한 정부정책의 효과는 당분간은 지속될 거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반면 농림어업(-14만6000명), 건설업(-8만4000명), 제조업(-6만1000명) 등에서는 감소했다. 건설업은 17개월, 제조업은 15개월, 농림어업은 8개월 연속 감소세다.

연령계층별로 보면 60세 이상(38만1000명)과 30대(13만3000명)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했고, 20대(-13만4000명), 40대(-4만5000명), 50대(-1만1000명)에서는 감소했다.

9월 임금근로자는 2257만6000명으로



공미속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이 1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9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지난달 취업자 수는 2915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1만2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시스

전년 동월 대비 38만6000명(1.7%) 늘었다. 상용근로자는 34만명(2.1%), 임시근로자는 4만4000명(0.9%), 일용근로자는 2000명(0.3%)씩 증가했다.

비임금근로자는 657만7000명으로 7만5000명(-1.1%) 감소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3만명(2.1%) 증가했지만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8만5000명(-2.0%) 감소했다. 무급가족종사자도 2만명(-2.2%) 줄었다.

9월 고용률은 63.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포인트(p) 상승했다. 1982년 월간 고용 통계 작성 이래 가장 9월 기준 높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4%로 전년 동월 대비 0.5%p 상승했다. 이 역시 198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은 수치다.

연령대별로 보면 30대(81.4%, 1.0%p), 40대(80.4%, 0.8%p), 50대(77.9%, 0.3%p), 60세 이상(48.3%, 0.9%p) 등에서는 고용률이 상승했다. 하지만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5.1%로 전년 동월 대비 0.7%p 하락했다. 지난해 5월 이후 17개월 연속 하락세다.

8월 실업자는 63만5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2000명(2.0%) 증가했다.

실업률은 2.1%로 전년 동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9월 취업자와 실업자를 합친 경제활동인구는 2978만8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만4000명(1.1%) 증가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65.0%로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했다. 9월 기준 역대 최고치다.

장주성 과장은 "큰 폭의 고용 증가가 가지는 의미는 그간 실업이나 비경제활동 상태에 있었던 분들이 이번 정책효과로 노동시장에 진입했다는 데 있다"며 "그간 취업자 수 증가세를 고령층이 계속 주도해왔는데 이번 고용동향에서는 고령층 취업자 수 증가는 크게 변동 없는 반면 20~50대까지 비경제활동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취업자 수 늘어난 걸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뉴시스



## 소상공인 웃음꽃 피울 때 지역경제에도 희망 있다 전남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상생 협력 의지 다져

전라남도는 목포 문화예술회관 특설무대에서 2025년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16일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소상공인의 날(11월 5일)을 앞두고 마련된 자리로, 도내 소상공인의 상생과 협력의 의지를 다지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 이계호 국회의원, 전남도의회의원, 박종찬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박진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장, 이강근 전남산상공인연합회 이사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박정선 전남도소상공인연합회 회장, 도내 소상공인연합회 등 8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비전선포식, 소상공인 온라인신문 '전남소상공인 연합뉴스' 강간식, 우수 소상공인 표창 수여식 등으로 진행됐다.

박정선 전남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비전선포식을 통해 "경기침체 등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들이 연대와 협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자"고

집했다. 도내 소상공인들의 모범사례를 발굴·격려하기 위한 시상식에선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협력에 기여한 우수 소상공인 7명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1점,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상 3점, 소상공인연합회장상 7점도 수여돼 소상공인들의 자긍심을 한층 높였다.

강위원 전남도 경제부지사는 "지역경제의 중심인 소상공인들이 상생과 협력의 의미를 되새기는 오늘 이 자리는 매우 값지고 뜻깊은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이 웃음꽃을 피울 때 지역경제도 희망이 있다. 전남도는 국가 주도 첨단산업과 지역상관 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상공인의 날 기념 행사는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와 연계 개최돼 도민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의미를 더했다.

/염선호 기자

## "농어촌공 5년새 안전사고 700건... 사망자 12명 발생"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전북서 121건으로 가장 많아

최근 5년 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700건에 달하고 사망자도 12명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9월 기준) 안전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총 700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로 인한 사망자는 12명, 부상자는 688명에 달했다.

안전사고 건수는 2020년 127건에서, 2021년 94건, 2022년 126건, 2023년 115건, 2024년 150건, 2025년 9월 기준 88건 등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절단, 배임, 찢림, 깔림 등 기타 사고가 225건으로 가장 많았

고 떨어짐 사고 173건, 넘어짐 사고 133건, 물체에 맞음 사고 90건, 끼임 사고 79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는 전북 지역이 121건으로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어 충남 105건, 경남 93건, 경북 92건, 전남 86건, 경기 73건, 충북 67건, 강원 56건, 제주 7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선교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아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며 "철저한 안전 교육과 위험 요인 제거, 그리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시스

## 전남도, 공공비축미 19만 톤 매입... 역대 최대

### 전년대비 26.4% 증가... 산물벼 11월말·포대벼 12월말까지

정부양곡 품질 고급화를 위해 매입 대상은 시군별 2개 이내 품종으로 지정하고, 지정 품종 이외 품종으로 공공비축 매입에 참여하는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 매입대상 농가에서 제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출하 농가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시료를 채취(전체 매입 대상 농가의 5% 이내 표본추출)하고, 매입 종료 이후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된 민간 검정기관에서 품종검정(DNA 검사)을 시행한다.

쌀 생산 조정을 위해 올해부터는 친환

경 비로 신규 전환한 물량은 농가가 희망하는 경우 전량 매입할 계획이다. 친환경벼 매입품종은 일반벼와 동일하며 추가로 잔류농약 검사를 한다.

잔류농약이 검출된 벼는 회수하거나 일반벼로 전환하며 농가에 대해서는 친환경인증 취소와 5년간 공공비축 참여 제한 조치가 이뤄지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매입 가격은 수확기인 10월부터 12월 까지 전국 평균 산지 쌀값(80kg 기준)을 조곡(40kg)으로 환산한 가격을 적용, 전국

단일가격으로 매입한다. 매입 직후 중간 정산금 4만 원이 지급되며, 최종 정산금은 12월 31일까지 지급 예정이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올해 여름 기록적인 이상고온과 잦은 강우로 어렵게 맺은 결실이 헛되지 않도록 매입 품종 확인과 수분관리를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며 "공공비축미국 매입 작업장에서는 안전수칙을 지키고 매입 현장 이동 시 교통사고 예방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깨씨무늬병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됨에 따라 피해 벼 농가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시중에 저가미가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피해 벼 농가수요량은 전량 조사해 매입할 계획이다. /신영길 기자

전라남도는 2025년산 공공비축미 19만 톤을 매입한다고 밝혔다. 전남도의 올해 매입계획량은 일반벼 10만 1천 톤, 친환경벼 2만 9천 톤, 산물벼 3만 1천 톤, 가루쌀 2만 9천 톤이다.

이는 전국 매입량 62만 5천 톤의 30.5%를 차지하고, 전년보다 26.4%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고 물량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12만 3천 톤, 2022년 15만 3천 톤, 2023년 14만 1천 톤, 2024년 15만 1천 톤이다.

매입 기간은 산물벼는 11월 30일까지 농가 편의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건조저장시설(DSC) 등 산지유통시설을 통해 매입하고, 포대벼는 오는 12월 31일까지다. 농가로부터 읍면별 지정된 장소에서 직접 매입한다.

